

JEW'S FOR JESUS

AustrAlasian Newsletter

May 2011

이번달로 이스라엘은 현대 독립국가가 된 지 63년이 됩니다. "Yom HaAtzma'ut"(이스라엘의 공식 독립 기념일)은 5월 9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중동에서 있었던 많은 불안함과,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봉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더 많은 민주국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독립기념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기뻐하는 것은 한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 아주 많은 서구국가들이 즐기는 자유를 추구할 때,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겪는 그 문제 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다른 이들이 시도해 본 정부 형태들을 제외할 때, 가장 나쁜 정부 형태는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독립과 민주주의만큼 중요한 해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동지역과 다른 곳의 사람들, 국가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진짜 쓸모있고 오래 갈 수 있는 해답들을, 어떤 형태의 정부나 정치인도 줄 수 없습니다.

독립과 민주주의는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인권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축복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창조자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우주의 왕이신 그 분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하는 일을 너무 자주합니다.

우리는 독립과 민주주의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천국고향을 소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 그 갈망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단 하나 뿐이신, 참 자비로우신 "독재자", 우리 예수님 아래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독립이 일으키는 문제에 관하여

THE PALESTINE POST

STATE OF ISRAEL IS BORN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때 어떤 종류의 국가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 예들을 연이어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의 반복을 사사기나 사무엘의 선언에서 그 예를 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사무엘상 10:19). 이러한 버림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군사적 재난을 가져오고,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감과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 앗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제국으로.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때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결과들에 대하여 전혀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에게 순종할 때 축복과 안전이 그 땅에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재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신명기 28장 63절) 분노의 말들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의 대적들로부터 구함을 받을 때에 절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저주와 축복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뻐할 만한 일이며, 그의 백성에 대한 절대적 회복 계획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권리가 아니라 신성한 자비의 결과라고 봅니다. 권리와 자비의 구별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을 믿는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기뻐할 때까지, 그 기뻐할만한 것들은 그저 깨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제국 치하일 때도 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때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로마서 9장 2-3절). 바울은 기뻐할 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로마서 10장 1절) 그 구원은 예수님 안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지 기념일"에 대한 기뻐함을 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독립문제를, 국가 이스라엘만이 겪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합니다. 또한 인간본성은, 우리 인생과 이 세계 안에서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선과 악에 대한 그 분의 유일한 권리부터 독립을 주장하게 합니다. 이러한 독립은 전쟁, 불안, 가난, 범죄, 부도덕함, 가족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람들과 국가들을 위협하는 진짜 문제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과 천국의 자유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기적, 독립적, 죄된 인생들에 부여된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끝내신

일에 대한 의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을 선언할 때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미래, 우리를 둘러싼 소란, 비애, 부족의 결과로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나 더 부족한 형태의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왕이신 예수와 함께있음을 확인합니다. 그의 공평하고 즐거운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기뻐할만한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미국 또는 다른 어떤 나라라도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여, 천국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그가 가져오는 구원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지요?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 다른 이들에게 그의 구원을 더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하셨고, 어떤 약속들은 앞으로 기뻐할 그러나 여태 오지 않은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이사야 10장 20절)

NAVY PUSHES PLAN FOR CONSTRUCTION OF MISSILE VESSELS
Heaviest Trading in 8 Years Marks Stock Market Spurt
LONDON Shows Change Hands in War of Bullish Enthusiasm
Sovereign 1 to 7 Points

선교 소식

JEW'S FOR JESUS

이스라엘

Oded Cohen이 보고합니다: Ami*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었는데,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행을 떠난 후에, 우리는 Ami를 집회에 데려갔고, 그는 그 때부터 매주 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저는 Ami에게 연락해서 대화도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마침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나요? Ami는 대답하기를, "아 네 네 진짜로요." 그는 덧붙이기를, "믿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는 벌써 어머니께 말했다고 그녀 또한 믿음에서 멀지 않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친구들에게 전도했는데 - 그 중 한 명은 벌써 우리 선교사들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말하기를 자기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Ami의 영적 성장과 그의 친구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Bimini Cohen이 보고합니다: 뉴욕에 있는 우리 선교사 중 한 명이 이메일로 요청했습니다 - Avi*를 도와주기로 말입니다(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믿는 이로 뉴욕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짧은 구원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그를 예전에 알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남편 Oded와 Avi는 새신자 시절에 1999년에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성경공부에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 해변의 금문교 밑에서 Avi의 세례식에 참석할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연락이 끊어졌었지요. 얼마 전 즈음 우리는 그가 생각나서 그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우리 가까이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믿지 않는 부인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뉴욕 / 영국

Simon Lissak이 보고합니다: 저는 뉴욕의 Diamond District에서 Jacob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십대의 젊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의 질문에 답을 했고 우리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고 추후에 만날 것을 제시했습니다. Jacob은 동의했고 그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시도록 기도해주시고.

저는 그 다음에 Lauren이라는 유대인 이십대 여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영국인이었고, 런던에 살았으며 심지어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그리고 뉴욕에 있는지 단 몇 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Lauren은, 가족들이 나가는 정통 유대교 회당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녀의 믿음이 붕 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의 믿음으로서 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 완전히 채워졌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메일 주소를 제게 주었고, 제가 뉴욕 훈련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독일

Dina Markova가 보고합니다: Olga*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녀를 전도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Olga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녀와 연락을 그만두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녀를 동네에서 보았고, 그녀는 나에게 왜 그 동안 연락을 안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그녀는 지난 방문보다 꽤 관심을 갖고 있었고 더 열려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 하러 자기의 집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곳으로 갔고 우리가 맨 처음 한 행동은 바로 "죄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Olga는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Igor Shelest가 보고합니다: 저는 Zlata라는 나이 많은 여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자매가 이 병으로 소천하였기 때문에 저는 Zlata와 함께하는 때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에 그녀를 방문했고 이번 방문에는 죄에 대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복음을 듣도록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그녀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원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여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녀는 어떤 것이 그녀의 속마음을 채운 듯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표정에 무언가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해주시고.

*가명

JEW'S
FOR
JESUS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Vol. 12 No.7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그리고TT로도후원을받습
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Liz Goldstein

저는 "길갈 캠프"의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길갈 캠프"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사역은 정말로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수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한 다음에야 열매를 볼 수 있지요"라는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기다림이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캠프로 우리는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년은 기념비적인 시간이지요. 그래서 지난 해에 맺은 열매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들을 통해서 금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받았으면 좋겠네요.

Johanna는 주니어 캠프를 5년째 참가하고 있었고 그 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번의 여름 캠프에서 그녀는 과연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지 아닌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확신이 없었고, 그가 죄를 사하여 줄지, 사하실 수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 캠프의 마지막 즈음, 그녀는 주님께 다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작년엔 저는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Johanna는 자신이 2년 전 어떻게 믿음과 씨름했는지 기억하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캠프에서 다시 인생을 헌신한 다음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 분께서 그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실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살짜리 학생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한 캠프에서 아이들의 결정들이 자기들의 인생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캠프에 오랫동안 참가한 아이들

중 Josh는 8살때부터 참가하였습니다. 17살 때 그는 참가자로서 마지막 해를 보냈고 보조 그룹 리더(캠프 상담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큰 형님과 영적 인도자를 겸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을 때 그는 보조 그룹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가자에서 다른 이들에게 캠프를 만들어주는 진짜 전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에서 중요했던 그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책임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캠프의 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Josh가 말한, 프로그램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캠프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자리잡은 영적 성장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험 캠프"에서 저는 Josiah라는 참가자와 대화를 몇 번 나누었습니다. 그 또한 8살 때부터 참가하였고 몇 년 전에 저는 그의 바 미츠바(역자 주: 유대인들의 성인식)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Josiah의 믿음은 그 때까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그는 우리의 "모험 캠프"에 왔었고 그는 그 프로그램의 영적 측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캠프에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저와 그는 카누를 같이 타고서 강을 타는 동안 하루 종일 이야기하였습니다. 캠프 일정의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온갖 대화를 나누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이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David는 그가 12,13살 때 거쳤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 그는 그의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David는 많은 신학변증론 책을 읽었고 다른 측면에서 그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단단한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Josiah와 나누었던 대화에서 저는 캠프 이후에 우리가 주욱 읽고 있었던 신학변증론 책들을 같이 읽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으로 대화를 끝맺었습니다. 그는 믿음, 그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더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더 원하는데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갈 캠프"의 사역을 통해 많은 어린 유대인 아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였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도전받았습니다. 우리는 20년 이상이나 메시아를 믿는 미래 유대인 세대에 투자하였고(저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저는 이 처음 20년 동안 맺어진 열매들과 또한 그 후에 올 20년 동안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Liz Goldstein은 우리 뉴욕 지부의 일원입니다. 그녀는 "길갈 캠프"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MK(역자 주: Ministry Kid - 사역자 자녀들을 일컫는 줄임말)로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Marcia Goldstein과 Baruch Goldstein은 Jews For Jesus(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셨답니다.